

# 하늘꽃 마음꽃

제2085호  
2020.10.4  
부산교구 수호자 목주기도의  
복도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경축 이동(군인 주일)



말씀의 씨를 솔솔~

## 말씀꽃씨



### 루카 음 (1,26-38)
















- 26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 27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 28  가  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 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계시다.”
- 29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 30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 **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애**를 받았다.
- 31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라 하여라.
- 32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잇**  **좌**를 그분께 주시어,
- 33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 **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님**의  **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 37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이 없다.”
- 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림 속으로 고고씩~

Visio Divina

Visio Divina(비지오 디비나)는 그림으로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목주기도로 이루어진 교구



부산교구 10주년 성체대회, 1967년 부산역 광장

1967년 5월 8일

옛 부산역 광장에서 실시한  
부산교구 설정 10주년 성체대회에서  
초대 교구장 최재선 주교님께서는  
부산교구를 목주기도의 성모님께  
봉헌하였어요.

한국전쟁 이후 1957년 창설된 부산교구였기에 많은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가난한 교구였지만, 초대 교구장 최재선 요한 주교님은 성모님께 기도하며 교구를 일구어가자고 말씀하셨어요. 2020년 현재 우리 부산교구는 수많은 성당이 봉헌되었고, 신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겠죠? 우리 교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주기도의 성모님께 기도드려요.



“우리는 목주를 손에 들고 일어나고 목주를 몸에 지니고 일하고 목주를 들고 눈을 감읍시다.”

(최재선 주교, 『성모님께 감사』 중에서, 1963년 8월)



1967년, 교구를 성모님께 봉헌할 때 모신 성모님을 2020년 현재 교구청 2층으로 모셔왔다.



교구청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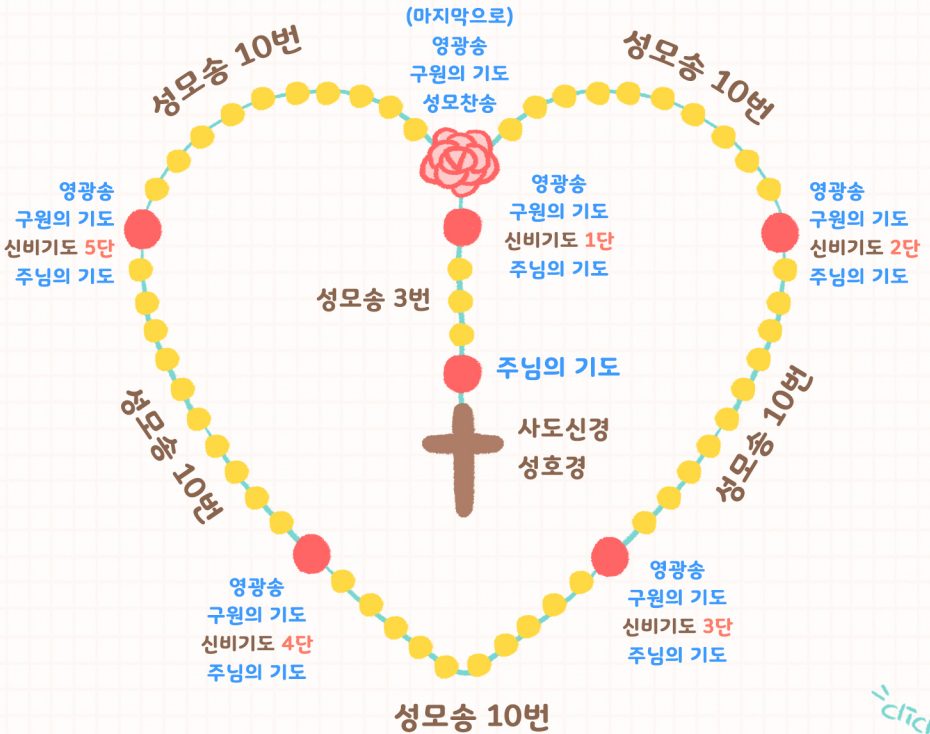




부산교구 수호자이신 성모님께...

# 목주기도 바치는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생각하며 성모님과 함께 기도해요~  
장미꽃 한 송이 한송이를 엮어서 기도 꽃다발을 만들어 봅시다!



click!

기도문과 자세한 설명은  
QR코드를 찍어봐~

